



절강대학교 즈진강캠퍼스 도서관 전경

절강대학교 기독교와 타문화연구소

⑥ 오동일

기독교적 배경

절강대학은 “북경에 칭화대학이 있다면 남방에는 절강대학이 있다” 고 말할 정도로 이공계로 유명한 대학이다. 중국과학원 원사와 중국공정원 원사의 60%가 이 학교 출신일 만큼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다. 절강대학은 중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장서(605만권)를 소장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명문 중의 하나로, 1897년에 설립된 ‘육영서원’과 ‘구시서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 중 ‘육영서원’은 1845년 미국 북장로교 맥가티(D.B. McCartee)목사가 Ningbo에 설립한 송신 의서(the Ningpo Boy’s Academy)로부터 시작되었다. 1867년에 Hangzhou로 옮기면서 육영 의서(Hangchow Presbyterian Boy’s School)로 개명, 1897년부터 대학과정을 개설하면서 육영서원(Hangchow Presbyterian College)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다. 그리고 1909년에는 미국 남장로교가 개입되면서 미국 남북장로교가 공동으로 운영하여, 1914년에는 지강대학(之江大學, Hangchow Christian College)으로 개명하였다.



1914년 지강대학 전경

그러나 1951년 지강대학이 절강성 정부 문교부 관할에 들어가면서 미국 교직원들은 모두 추방되어 중국을 떠나야 했다. 1952년에는 중국정부가 전국대학들 학과조정을 대대적으로 감행하면서, 지강대학의 문리대와 공과대 대부분을 항주대학에 합병시켰다. 그리고 1998년에 항주대학이 다시 절강대학에 합병되면서, 기독교대학인 지강대학이 오늘의 절강대학 전신을 이루게 되었다.

이어지는 기독교 명맥

오늘날 절강대학은 기독교적 명맥을 나름대로 이어가고 있다. 역사적 이유로 오랫동안 기독교 연구가 중단되었으나, 20세기 들어와서 80년대 개혁개방 이후부터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 1991년 3월에 절강대학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기독교연구센터’를 출범시켜 해외석학들을 초청하여 강좌들을 개설하였고, 해외 단체들의 도움으로 <종교와 문화>(북경, 동방출판사, 5기를 출판했음)라는 학술지를 발행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04년11월에 ‘기독교연구센터’가 중국 교육부 산하 철학사회과학 창신기지로 지정되면서 ‘기독교와 타문화연구센터 (The Institute of Christianity and Cross-Cultural Studies, 약칭ICCS)’로 출발하게 되었다. ICCS는 절강대 인문, 국제문화, 교육, 외국어, 법학대학 등에서 기독교문화 관련연구에 종사하던 학자들로 구성되어 학제간 연구를 하고 있다. 현재 34명의 연구원을 두고 있으며, 그 가운데 정교수 21명, 부교수 7명, 전임강사 6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30여명의 석박사과정 학생과 3명의 박사후 연구원을 두고 있다.

ICCS는 현재 다섯개의 연구방향을 정하여 진행중에 있다. 1)헬라문화와 초기 기독교 관계 연구; 2)종교철학과 종교간 대화; 3)기독교의 전파과정 연구; 4)전환기에 있는 중국기독교 연구; 5)문화와 종교간 충돌문제 연구 등이 있다. 지난 수년간 거둔 가장 큰 학술 성과로는 천춘푸 교수가 『전환기 중국기독교 연구』 완간하였고, 왕소초 교수가 『플라톤 진집』을 헬라어에서 중국어로 번역출판하였으며, 천춘푸와 왕쯔청 교수가 『헬라철학사』(전4권)를 출간하기도 하였다.



1. 즈진강캠퍼스 교학동 2. 시시캠퍼스 EMBA과정 3. 기숙사

교류와 협력

학술과 학과는 국제적인 것으로 거기에는 국경이 없다. ICCS는 국내의 학술교류와 협력을 자신의 핵심 사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1991년부터 2004년까지 ICCS는 국내외 많은 단체 혹은 대학들과 다양한 학술교류와 협력을 이루어왔다. 주요한 형식으로는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을 서로 파견하는 것이었다. ICCS는 콜롬비아대학, 미국CAC, 미국천주교연구회, 예일대학, 프린스턴대학, Santa Borban대학, 이태리철학연구소, 토론토대학, 암브로스도서관, 영국리츠대학, 이스라엘 베들레헴대학, 홍콩한어기독교문화연구소 등 우수한 해외단체들과 학술교류와 협력을 이어 가고 있다. 고대 슈메르(Sumer), 아카드(Akkad), 바벨론(Babylon), 이스라엘과 환지중해권의 고전학 연구에 조예가 깊은 학자들을 초청하여 교학과 연구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기도 하다. 그 외 ICCS는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종교연구소, 북경대학, 중국인민대학, 중앙민족대학, 복단대학, 남경대학, 칭화대학, 무한대학, 중산대학, 사천대학, 산둥대학, 복건사범대학, 화중사범대학, 영남대학 등 10여개 종교 혹은 기독교연구단체들과도 학술교류를 하고 있다.



오동일 중국 칭화대학교에서 공학을 전공하고 연세대학교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국 칭화대학교 철학 박사후 중국 절강대학교 기독교와타문화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